

### 김태훈 청해이엔씨 대표이사, 전남대병원에 1억원

㈜청해이엔씨 김태훈 대표이사가 전남대학교병원에 1억원을 약정, 기탁했다. <사진> 최근 전남대병원에서 열린 발전후원금 전달식에는 정 신 병원장, 청해이엔씨 김태훈 대표이사, 코비코(주) 조준영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김태훈 대표이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전남대병원이 더욱 발전하라는 바람을 담아 기부하게 됐다"며 "경제도 어렵고 의료상황 또한 녹록치 않지만 전남대병원이 흔들리지 않고 지역민을 위한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해이엔씨는 완도에서 전기·소방시설·정보통신 등 다양한 사업으로 지역 건설 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이종균 서울송도병원 이사장, 조선대 발전기금 1억

서울송도병원 이종균 이사장이 조선대의 과대학 학생들을 위해 써달라며 발전기금 1억원을 전달했다. <사진> 최근 조선대학교 본관에서 진행된 발전기금 기부식에는 이종균 이사장, 조선대 김준성 총장 등이 참석했다.

조선대의과대학 2회 졸업생인 이종균 이사장은 1981년 서울송도병원을 개원한 후 대장항문 분야에서 세계적인 의료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이 이사장은 2014년부터 조선대의대 50주년기념관 건립기금, 몽골 연수생 기숙사비 지원, 의대 발전기금 등 총 3억 1699만원을 기탁해 대학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다.



이 이사장은 "모교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 영광이다. 앞으로도 후학 양성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마옥천 베비에르 대표 '서구아너스' 회원 가입



마옥천 대한민국 명장(㈜베비에르 대표·오른쪽)이 광주시 서구가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운영하고 있는 고액후원자 그룹인 '서구아너스'에 이름을 올렸다.

48번째 서구아너스 회원으로 가입한 마옥천 명장은 매년 500만원씩 5년간 총 3000만원 후원을 약속했다.

마옥천 명장은 ㈜베비에르를 운영하면서 20년 넘게 노인복지관과 노인요양원, 각종 사회복지단체 등에 직접 만든 빵을 만들어 후원하고 있다. 또 '서구명장스쿨' 등을 통해 청년창업자들에게 성공 노하우와 자신의 레시피를 전수하며 상생과 동행의 경영철학을 실천하고 있다.

/유연제 기자 yjyou@

### 광주사회복지협의회, 희망나눔캠페인 515만원 기부



광주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영기)와 사회복지봉사자들이 10일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박철홍)에 '희망2025 나눔캠페인' 기부금 515만원을 전달했다. <사진> 이번 기부금은 지난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62일간 진행된 광주 사랑의 온도달

울리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광주지역 24개 사회복지시설·기관과 사회복지봉사자 128명이 십시일반 참여해 마련했다.

모금액은 광주시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사회복지기관 종사자의 교육·훈련 사업비에 사용될 예정이다.

/양재희 기자 heestory@

### 담양군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유해환경 근절 캠페인



담양군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단장 서서현)은 지난 7일 담양군과 경찰서, 교육청, 담양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지역 관계기관과 함께 담양읍 중심 상가 주변에서 겨울 방학 청소년 유해환경 근절 캠페인을 진행했다. <사진> 이번 캠페인은 겨울 방학을 맞아 민관합동

로 청소년 음주·흡연 행위 등을 점검·단속해 청소년 유해환경을 개선하고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감시단은 청소년 유해 약물뿐만 아니라 폭력에 노출된 위기청소년에 대한 보호 활동도 실시하고 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 광주대 학생군사교육단

#### 동계입영훈련 우수 후보생 표창



광주대학교(총장 김동진) 학생군사교육단 김인욱(왼쪽), 김경환 학군사관후보생이 2025년도 동계입영훈련에서 우수 후보생 표창을 받았다.

김인욱 씨는 각계전투 훈련 과정에서 부상에도 목발을 짚고 가능한 훈련을 모두 소화하는 강인한 여군 정신을 발휘해 우수 후보생으로 선발됐다.

또 김경환 씨는 주변 전우들을 앞장서 돕고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한 모범적 생활로 우수 후보생의 영광을 안았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TV프로그램 1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트래블출력(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TV 유치원 30 생생정보 스페셜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1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친절한 선주씨(재)	40 닥터 365 50 좋은아침
9	30KBS 뉴스 930	30 신데렐라 게임(재)	30 930 MBC 뉴스 55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국민의힘>	55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국민의힘>
10	00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국민의힘> 50 TV쇼 진품명품(재)	1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인간극장 스페셜	45 뽀뽀 좋아 좋아	50 잘 먹고 잘사는 법 플러스
11	40 걸어서 세계속으로 초이스	1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20 슈퍼맨이 돌아왔다(재)	15 헬로키즈 TV생물도감(재) 45 까망과 베리의 푸드트릭	20 꾸러기 탐구생활 5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특집 KBS 뉴스 12	40 2025 하얼빈 아시안게임 <스피드스케이팅 남녀 1000m>	00 12 MBC 뉴스 25 MBC 네트워크특선	20 SBS 12뉴스 45 민방 네트워크 뉴스
1	00 2025 하얼빈 아시안게임 <스피드스케이팅 /프리스타일스키>		55 2시 뉴스 외전	10 캐리와 친구들 2(재)
2	00 KBS 뉴스특보 30 2025 하얼빈 아시안게임 <스피드스케이팅>			00 뉴스브리핑
3		15 월드컵 45 브레드와 워크의 세계여행(재)	55 기본 좋은 날(재)	
4	00 사사건건	00 TV 유치원(재) 30 어린이 동물터비(재)	55 MBC 뉴스특보	00 최선규의 이제는 지방시대 55 닥터 365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재)	00 라이즈맨 15 슈팅스타 캐치 티니핑 30 트레이닝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25 트로트 클래스 3	00 SBS 오뉴스 50 KBC뉴스와이드
6	00 6시 내고향	00 경제콘서트 35 2TV 생생정보	05 더 프리지던트	45 닥터 365 50 생방송 투데이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생방송 토론740	40 2025 하얼빈 아시안게임 <피겨스케이팅>	05 친절한 선주씨 4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8	30 결혼하자 맹꽁이!	30 셉템버사의 비밀		30 KBC 8 뉴스
9	00 KBS 뉴스 9	50 스모킹 건	00 손석희의 질문들	00 신발 벗고 돌싱포맨
10	00 시사기획 창 50 KBS 뉴스라인W	50 아이 러브 스포츠	30 PD수첩	20 SBS 스페셜 The 빵
11	30 영성앨범 선(재)	15 오래된 만남 추구(재)	30 100분토론	20 우리들의 초콜릿 순간
12	00 KBS네트워크특선 과학으로 보는 세상 SEE 50 생활의 발견	45 KBS 재난방송센터	55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피겨 남자 싱글 쇼트-차준환 /스피드스케이팅>	30 휴먼다큐 마냥 이쁜 우리말

###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8:10 EBS 뉴스
05:30 클래스 e	11:20 세계테마기행	18:30 교육대기획
05:50 한국기행	12:00 EBS 뉴스 12	-클래스 업! 교실을 깨워라
06:10 세계테마기행	12:10 귀하신 물	19:20 고향민곡
07:00 예교와 친구들 수리수리 넘버랜드	13:00 EBS 평생학교 1교시	19:50 극한직업
07:15 모두 함께 부스누!	13:45 EBS 평생학교 1교시	20:40 세계테마기행 <네발을 걷다-히말라야에 산다>
07:30 뽀롱뽀롱 뽀로로	14:30 EBS 평생학교 2교시	21:35 한국기행 <주는 대로 먹어요 2부 임마 손맛 직배송>
07:45 메탈카드봇 S 경찰의 귀환	15:15 나의 두 번째 교과서	21:55 건축탐구 - 집
08:00 당동댕 유치원	15:55 불룩스	22:50 EBS 다큐프라임
08:20 한글용사 아이야	16:10 당동댕 유치원(재)	23:40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08:35 다이노스터 공룡수호대	16:30 페파 피그	24:00 나의 두 번째 교과서
08:50 샤샤 앤 마일로	16:40 마사와 곰	24:40 EBS 비즈니스 리뷰
09:20 자이언트 팽TV	16:55 뽀롱뽀롱 뽀로로(재)	
09:40 팍준빈의 세계 기사식당 3	17:10 한글용사 아이야(재)	
10:30 한국기행(재)	17:40 메탈카드봇 S 경찰의 귀환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2월 11일(음 1월 14일 辛亥)

<p>36년생 풍요하고 나아가는 것이 무리가 없으리라. 48년생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이익이 따를 수도 있는 하루다. 60년생 지속적인 노력이 경주된다면 풍성한 결실이 있을 것이다. 72년생 누락이나 중박이 될 수도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84년생 목직하는 바가 없다면 대체도 무난하겠다. 96년생 끈질긴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는 단계이다. 행운의 숫자 : 12, 92</p>	<p>42년생 이면의 결함을 간파하여서는 아니 된다. 54년생 수심이 깊으므로 건나야 할 때가 필요하다. 66년생 조정이 보이거든 즉시 대처하는 것이 좋다. 78년생 눈에 띄지 않게 비밀리에 조용히 진행하는 것이 최선이라 하겠다. 90년생 물라도 될 일을 알게 되어 걱정하리라. 02년생 별 탈은 없지만 적극적인 활동이 아쉽다. 행운의 숫자 : 36, 70</p>
<p>37년생 반드시 이행해야 차질을 빚지 않으리라. 49년생 훌륭한 경험이 될 수도 있으니 편안한 마음으로 임하자. 61년생 얼마나 오래 끌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효과를 보느냐이다. 73년생 무리가 따르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보자. 85년생 마음에 내키지 않더라도 응하는 것이 낫다. 97년생 남음이 진담으로 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49, 94</p>	<p>43년생 모래 위에 쌓아 놓은 성곽에 불과하다. 55년생 객관적인 사실과 주관적인 감정을 엄격히 구분하자. 67년생 궁극적으로 정리되거나 통할 수 있는 마당이다. 79년생 근소한 차이로 승부가 날 수도 있는 국세이다. 91년생 현상 유지야말로 상책임을 알고 진중해야 한다. 03년생 사세가 종합적으로 진취된다면 능률적이다. 행운의 숫자 : 06, 63</p>
<p>38년생 아니다 싶으면 단호하게 청산하는 것이 좋다. 50년생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나은 결과를 낳게 한다. 62년생 발전적인 논의를 한 끝에 결실을 이뤄내는 판도이다. 74년생 확실하게 통제되지 않는다면 결림들로 작용한다. 86년생 감정을 배제해야 객관적인 시각을 확보할 수 있다. 98년생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리라. 행운의 숫자 : 07, 65</p>	<p>44년생 건너졌었다가는 망신당하는 수가 있다. 56년생 서두르지 말고 조용히 추이를 관망하자. 68년생 예상보다 앞 당겨질 수도 있으니 방심하지 말고 차질 없이 준비하라. 80년생 실행 가능한 것부터 우선 처리하고 불 일이다. 92년생 생양의 기운으로 표리가 충만해지는 기쁨이 있다. 04년생 무시한다면 위험에 직면한다. 행운의 숫자 : 31, 81</p>
<p>39년생 앞만 보며 밀고 나아가야 할 때이다. 51년생 지켜 보고 있노라면 한계가 드러날 것이다. 63년생 침착하게 대처한다면 별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75년생 다 잡은 고기를 놓칠 수도 있음을 알아야 것이다. 87년생 당장 할 수는 있으나 탄력을 받기에는 시일이 필요하다. 99년생 침착해야만 목직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01, 71</p>	<p>45년생 절제로 인한 부가적 효과가 상당하다. 57년생 전체적인 분위기를 잘 파악해야겠다. 69년생 일시적으로 중단 수가 보이지만 머지않아 재개될 것이다. 81년생 완벽하게 들어맞지 않는다면 나서지 않는 것이 옳다. 93년생 중대한 고비에 와 있으니 주도면밀하게 대처해야 한다. 05년생 징후가 보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행운의 숫자 : 43, 96</p>
<p>40년생 결모양은 허술해도 상당히 실속이 있을 것이다. 52년생 주변인들의 반응일랑 차치하고 주관대로 밀고 나아가자. 64년생 외관의 규모까지 고려해야 할 중요한 시기이다. 76년생 현재는 하찮더라도 장래는 요긴하게 쓰일 수 있겠다. 88년생 내색하지 않는 편이 훨씬 효과적이다. 00년생 실익이 없다면 끼어들 필요가 없다. 행운의 숫자 : 11, 52</p>	<p>46년생 오히려 상대가 더 바라고 있던 바이기도 하다. 58년생 가장 시급한 일에만 우선적으로 집중하라. 70년생 잘 살 펴보고 모색한다면 확실한 대안이 마련되리라. 82년생 당해 사상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중한 것이니 소홀히 하지 말고 정성을 다하라. 94년생 기회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 06년생 함께하는 것도 괜찮다. 행운의 숫자 : 10, 83</p>
<p>41년생 이면의 가치를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 53년생 새로운 것이기는 하지만 검증되지는 않았다. 65년생 발설하지 말고 끝까지 항구하고 있어야 한다. 77년생 기대치 이상의 성과가 나타나서 만족스러워하는 국량이다. 89년생 상당한 수익이 발생할 것이니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이다. 01년생 기금적 절제하는 것이 지해롭다. 행운의 숫자 : 22, 87</p>	<p>47년생 귀한 것이 생겨서 행복해지게 되어 있다. 59년생 꺼릴 수 있으나 아예 말도 꺼내지 않는 것이 낫겠다. 71년생 현선이 빛어질 수도 있으니 착오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자. 83년생 몇 차례의 중간 점검이 필요하므로 세심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95년생 도모한다면 발전에 밑거름이 된다. 07년생 길조가 뜨는 판세이니라. 행운의 숫자 : 00, 72</p>